

# 협회동정



▲ 멀티미디어산업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국가경쟁력과 멀티미디어」 세미나를 개최했다.

## 「국가경쟁력과 멀티미디어」세미나 개최

우리협회는 지난 10월 14일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국가경쟁력과 멀티미디어」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에서 서정욱 체신부 전과통신기술개발추진협의회 의장은 「멀티미디어가 사회 문화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멀티미디어는 21세기에 있어 우리 생활전반에 걸쳐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

고 지적하면서 “새로운 사회기반으로 부각되고 있는 정보고속도로 정비에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멀티미디어시대에서의 교육적 도전과 과제」를 통해 한중하 교육개발원장은 “학교교육의 미래도전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현대적 교육공학 기술의 과감한 도입,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의 제도적 연계성 구축 등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택섭 고려대 교수는 「멀티미디어와 언론」이라는 주

제발표를 통해 “뉴미디어의 출현은 올드 미디어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한다”고 설명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과감한 체질개선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 연사로 나온 김건중 멀티미디어협회 위원장(삼성전자 전무이사)은 「멀티미디어가 산업, 기술분야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2000년대에 멀티미디어의 시장은 약 3조달러로 추정된다”는 전 애플사 회장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멀티미디어시대에 대비한 국제전략 마련, 사회구조 예측, 새로운 문화창조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세미나는 차세대 정보기술로 부각되고 있는 멀티미디어에 대한 마인드 확산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우리협회 멀티미디어협회가 주최하고 체신부가 주관했다. (관련기사 33쪽 참조, 문의 : 이용구 과장)

## 신임 신범식 상근부회장 상견례

우리협회는 제37회 이사회를 지난 10월 20일 상공회의소 상의클럽 S룸에서 정장호 회장의 20명의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 이사회에서는 신임 신범식 상근부회장과 우리협회 이사진간의 상견례가 이루어졌으며 제36회 이사회와 지난 9월, 10월 우리협회 주요업무 현황이 보고됐다. 또한 협의사항으로 정보통신 관련 부처별 정책추이 현황도 보고됐다.

이 업무현황에 따르면 우리협회는 CALS KOREA '94(9/30, 314명 참석), 제1회 멀티미디어 세미나(10/14, 212명 참석), '94국산 주전산기 소프트웨어 전시회 개최(10/15-10/19, 7299명 참석), 소프트웨어 산업 및 SI사업 육성방안 수립(10/15, 10/17 각각 체신부 제출), 정보윤리위원회 활동(정보윤리심의 359건, 전화정보 모니터링 455건, 정보윤리조사 연구회 구성 및 회의), 중국 우전부 방한단 오찬회(10/31, 중국측 17명 참석), 세계정보통신산업 조사연구 프로젝트(10/10 계약체결) 등을 추진했



▲ 제37회 이사회에서는 신임 신범식 상근부회장과 협회 이사진간의 상견례가 있었다.

으며 제3회 정보통신상호운용 워크숍(11/23-11/25), CALS KXPO '94 참관(12/4-12/10), 일본 신세대통신망 파일럿 모델사업 시찰(12/13), 정보산업 금융지원방안 연구(11월중 체신부 제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보고된 정보통신산업 관련 정책추이 현황에 따르면 교통부는 “화물유통 촉진법 개정 법률안”을, 과학기술처는 “영상진흥기본법(안), 첨단 영상S/W기술지원센터”를, 상공자원부는 “네트워크 기술기반(산업기술정보망) 구축, 멀티미디어산업 육성, 지역정보센터기능 강화”를, 총무처는 “정보공개법 시안”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체신부는 “광파이버시티 건설”

을 추진중이다.

이에 따른 대응방향으로 우리협회는 사업별 대응조직을 신설(예, 초고속정보통신망민간협의회, LAN협의회, WG의 제도화) 또는 개편키로 하고 협회 운영방향은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까지 포괄키로 했다. 또한 예산·사업계획의 유연화를 통해 각종 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활동재개를 확보키로 했다.(문의 : 임성무 부장)

## 정보화추진우수사례집 편찬위원회 참석

제2차 정보화추진우수사례집 편찬위원회가 지난 10월 12일 한국정보문화센터 회의실에서 백석기 편찬위원장(한국정보문화센터 기획연구실장) 등 5명

의 편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 회의에서는 발간일정에 따른 기관별 추진사례에 대한 승인, 원고 집필방향 등이 논의됐다. 기관별 승인사례는 한국전산원의 경우 전남 어업관리 GIS, 해운항만청의 항만운영정보시스템, 통계청의 통계조사 온라인시스템 등 6건이며 한국정보문화센터의 경우 삼성의 료원, 육군전산소, 정읍군청 등 8건이다. 우리협회는 금성사 EIS, 대림산업의 기업정보망, 동양폴리에스터의 TOFIS 시스템 등 6건이 승인됐다. 이와함께 원고 집필방향에 대해서는 가급적 단문으로 구성하고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도록 집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보화추진우수사례집 발간은 우리협회, 한국전산원, 한국정보문화센터 등 3개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국내 우수한 정보화사례를 발굴 홍보하여 유사한 기관, 업체, 주민의 정보화 추진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국가 사회 각부문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진행하고 있다.

현재 편찬위원회는 백석기 편찬위원장(한국정보문화센터



▲「중국 우전부 방한단」 오찬에서는 양국간의 정보통신분야에서의 협력방안 등이 논의됐다.

기획연구실장), 구교광 편찬위원(체신부 부가통신과 계장), 여찬기 편찬위원(한국전산원 행정관리실장), 현호중 편찬위원(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상무이사), 함창용 편찬위원(통신개발연구원연구원) 등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문의 : 조영훈)

### 중국 우전부 시찰단 방한에 따른 오찬 개최

우리 협회는 지난 10월 31일 정장호 회장 등 회장단 체신부 이종순 정보통신협력관 등 12명의 한국측 대표들과 중국 사계광 우전부 관리간부학원장 등 17명의 중국측 시찰단이 참석한 가운데 프레스센터 국화

실에서 「중국 우전부 시찰단 방한」에 따른 오찬을 개최했다.

이날 오찬에서는 양국 대표간의 상견례와 우리측의 중국 정보통신분야 진출에 따른 중국의 정보통신 현황 등 상호 관심사가 논의됐다.

이번 중국 우전부 시찰단의 방한은 지난 3월초 개최된 한·중 통신고위실무회담에서 합의된 양국간 전자교환기 합작사업 확대, 중국의 통신망 건설협력, 차세대 교환기 공동연구개발 및 각종 분야별 인력교류 등 구체적인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올해들어 두번째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